○ 프랑스 -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지침 발표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23일 및 2020년 3월 30일 디지털서비스세 준수, 적용 범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침 초안을 발간함²³⁾

○ 지침 초안은 주로 과세 대상 서비스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23일까지 공개협의의 대상이 되므로 최종 지침이 발간되기 전에 수정될 수 있음²⁴⁾

- 지침 초안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납세자는 추후 지침 초안이 수정되더라도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프랑스는 2019년 7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여 특정 디지털서비스로부터의 매출에 대한 3% 단일세율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였고²⁵⁾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과세관청은 2019년 10월 16일 디지털서비스세 준수 절차에 대한 첫 번째 지침 초안을 발간하였음

■ 디지털서비스세의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해당하고 둘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가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넷째, 기업의 매출이 일정 적용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사용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해당하며 운영자가 소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은행 간 결제시스템과 같은 금융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는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IP주소, 지리적 데

23)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298-PGP>, 검색일자: 2020. 4. 21.

24)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ance-issues-comprehensive-draft-guidance-on-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0. 4. 21.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1호, 2019, pp. 71~73.

이터 또는 다양한 트래킹을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프랑스 내의 기기를 통하여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함

-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서의 소득을 연중 일부 기간 동안만 얻었다거나 서비스 사용자가 프랑스에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소득은 산입됨
- 글로벌 총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 및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의 매출 이상인 기업이 그 적용 대상이고 프랑스 내의 매출 기준 판단 시에는 프랑스 실질 비율(French Presence Ratio)을 적용하여 판단함
 - 프랑스 실질 비율이란 각 과세 대상 서비스 사용자 전체에 대한 프랑스 사용자들의 비율임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두 차례의 중간예납세의 형태로 납부하고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는 연기됨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나 디지털서비스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6년임
- 디지털서비스세는 두 차례의 중간예납세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나 지침은 2020년 12월까지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징수를 연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와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디지털서비스세의 징수 유예는 OECD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그 합의안이 도출될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2019년 미국이 디지털서비스세의 실행에 반대하며 보복적 관세를 예고하는 등 국제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